

F1005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유리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6613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5.08.03
운용기간	2021.07.01 ~ 2021.09.30
종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종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 채권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화,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자산 총액 (A)	2,329	1,680	-27.87
	부채 총액 (B)	1	1	-25.24
	순자산총액 (C=A-B)	2,328	1,679	-27.87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2,042	1,501	-26.46
	기준가격 (E=C/D × 1000)	1,140.17	1,118.35	-1.91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동 분기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가파른 재확산세로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자 미국 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을 실었고 장기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9월 FOMC 이후 초기 테이퍼링 시행 및 금리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가 국제금리 급등으로 이어진데다 중국발恒大그룹 파산 우려, 전역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투자심리를 급랭시키며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핵심 이슈의 중심에 있던 중국 증시가 급락하며 신흥국 증시는 선진국과 뚜렷하게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세계:-1.45%, 선진국:-0.35%, 신흥국:-8.84%)

동 기간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달러 강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겼고 연준의 테이퍼링 기대가 강화된 영향으로 강달러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로존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약세도 달러 강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내 역사적인 수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패닉셀링을 연쇄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며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동 기간 편입종목은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며 하락종목이 다소 우세하며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노이즈가 확대되고 추소를 반복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운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거래소 기업들도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거래소들이 선전하였고, 특히 지수제곱기업들의 주가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는 등 펀드 성과 개선에 주도하였습니다.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 거래소도 견조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럽 거래소들은 실적부진 및 개별종목 이슈에 영향을 받으며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넥스트는 신상품 출시 소식과 함께 인수합병 효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호주 거래소는 실적 호조에 글로벌펀드들이 앞다투어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일본거래소는 스가 총리의 사임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탄력을 높였습니다. 다만 신흥국 거래소 중 중남미 거래소들은 글로벌 경기회복 특화 우려 및 달러 강세 영향에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차이나 A주 선물거래를 주도했던 싱가포르 거래소는 홍콩거래소가 해당 거래를 승인 받으며 실적입박 우려가 부각되어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펀드는 달러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국면에서 신흥국거래소 비중 축소 스탠스를 지속하였습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마켓데이터 및 지수산물 관련 기업의 편입비는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신규 종목 발굴하여 편입하는 등 장기 성과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개선된 유동성 환경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었던 유럽거래소는 확대한 비중을 축소하여 모멘텀 소진에 대응하였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그동안 단기 상승폭이 컸던 유관기관 종목에서 일부 차익실현을 실행하였습니다. 개별종목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거래소기업별 재료에 따라 상승재료를 보유한 종목, 실적개선 가시화가 기대되는 종목은 비중을 확대하였고 상승모멘텀이 부재하거나 기업이익 개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면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동 펀드는 재간접형펀드 내에서 환헤지를 하고 있으며, 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67.80%의 헤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 헤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펀드내 설정/해지, 주기변동, 환율 변동 및 펀드 규모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글로벌증시는 경제활동 정상화 속도,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 핵심 경제지표 결과와 이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지속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변수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장기 금리 궤적에 따른 통화정책정상화 속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결국은 해결할 문제이지만 협상과정에서 노이즈는 시장변동성 확대 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다툼이 수면위로 부각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시장은 3분기 실적시즌을 맞이하여 이익성장 피크아웃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기업들의 이익추정치 전망이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영된 위험요인이 다소 진정될 경우, 시장은 다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며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제한적 상승흐름을 전망합니다.

3분기 실적시즌을 맞이하여 전분기 대비 실적개선이 기대되나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거래소 기업은 대형 빅테크종목이 보여주는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던스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이익성장과 가이던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기업의 실적회복도 점진적으로 상승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거래소의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전환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고 작은 인수 합병 행보와 함께 현재의 독과점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거래소 및 유관기관의 장기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울러 주요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며 신상품 출시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쩍 증가한 ESG 관련 지수 및 상품, 암호화폐 기반 시스템 및 상품출시 등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장기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된 불확실성 환경은 부담요인이지만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 축소된 편입비를 소폭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전략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제성장과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 섹터는 바로 거래소기업입니다. 물가지표 서프라이즈, 개선된 고용환경으로 초기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헤치기 위한 니즈가 증폭되며 거래량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흐름이 전망됩니다. 펀드는 환에 강도가 약화되었고 자금 유입세가 관찰되고 있어 자금 유출임에 따라 개별종목 편입비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편입비는 다소 하향 추 재상향 예정이며 각국의 통화 및 금융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초과수익 기회를 탐색하겠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1.91	4.58	5.79	5.30

* 비교지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5.30	15.30	14.01	24.26

* 비교지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168	0	0	0	0	0	0	4	164
당기	0	0	0	-30	0	0	0	0	0	0	-3	-33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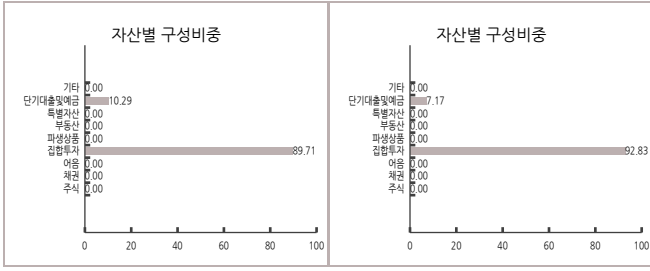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0 (0.00)	0 (0.00)	0 (0.00)	1,500 (92.8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20 (7.17)	0 (0.00)	1,680 (100.00)
합계	0	0	0	1,500	0	0	0	0	0	120	0	1,680

(*) : 구성비중

전기	당기
----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유리글로벌채권(주식-C1)	92.83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7.17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유리글로벌채권(주식-C1)	주식형	945	1,560	대한민국	KRW	92.8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5-08-03	120	0.46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일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2	81	2,556,282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56,282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56,282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29	81	2,556,282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4	0.15	3	0.1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4	0.16	3	0.16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증개수수료	단순매매 증개수수료	0	0.00	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합계	0	0.00	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증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6378	0	0.6378
당기	0.6377	0	0.6377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증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증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증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팀채린자산배분F형(유리자산운용)'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